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7. 29.(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7월 29일(수)부터		
담당부서	의사입법담당관 정책팀	담당자	유재한 주무관(044-300-7322)

세종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방문단 접견

- 세종·호남 광역의회 연대...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공조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29일 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접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주 경기도의회 및 인천시의회 방문단 접견에 이은 연속적인 행보로, 수도권에 이어 호남권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자치분권 연대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의회는 지속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과 호남권 광역의회가 더욱 강력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신일 의장은 환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충청과 호남을 잇는 강력한 균형발전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특정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곧 지방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호남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 의장은 앞서 논의된 핵심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도 양 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법안 제·개정을 공동 건의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